

# 부활절 개회 기도

테리 그레이 | 2020년 4월

성구집 (마태복음 28:1-10 혹은 요한복음 20:1-18)

금요일의 사건 이후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 토양에 깊이 박혔지만,  
지금까지도, 삼 일이 지났어도,  
죽음의 악취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하나님,

공기 속으로 스미는 생명의 향기가 있음은  
당신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지만 하나 같이 당신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에  
압도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친 바로 그들의 거부 앞에서도  
모든 것을 감수하신 사랑에.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팔은 넓게 펼쳐졌습니다

녹슨 못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세상을 품기로 선택하신  
그 방법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신의 백성 우리는 이 부활 주일 이곳에 부활하신 당신을 보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소원은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몸을 구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자아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 존재하도록 생명을 설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공포와 슬픔 그리고 절망의 장소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의 성도임을 이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다시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 부활절 메시지

요한복음 20:1-18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주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와, 내가 놓친 기회네” 그것은 아마도 오래 전에 잃었던 친구와의 연결, 혹은 어떤 산에 올라갈 기회, 혹은 한 번 밖에 없는 세일, 혹은 중요한 행사 참여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마리아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놓쳤던 어떤 기회들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성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가 아주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주신 분에게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었지요.

마리아는 죽음과 연결된 장소, 애도와 슬픔의 장소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두움은 그녀의 애도의 밤을 상징했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로부터 슬픔의 상징인 무덤을 향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 거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부활의 현실이라는 빛으로 밝게 덮이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 몇 시간 내에 마리아가 이 새로운 현실 감지를 시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현실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마리아에게는 네 가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은 그녀가 찾고 있었던 시체가 이제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한 깊고 넓은 의미를 파악할 여러가지 기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살아 계신 구세주의 현존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자주 놓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려에 매몰되어서 말이지요.

1

마리아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간 상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마리아는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었지요.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무덤에 두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가능성도 그녀에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응답 혹은 필요를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을 넘어 놓여있기 때문이죠.

2

놓친 두 번째 기회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간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가 본 후에 깨달은 무엇인가를 마리아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개켜 있는 방식에 그들은 놀랐고 이는 설명이 필요한 미스터리였을 것입니다. 세마포가 놓인 방식의 심상치 않음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마리아에게 이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살아계신 구세주의 복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는 대신에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가 설사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겹더라도 그러한 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살아계신 구세주로 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세 번째 기회는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 볼 때 찾아 옵니다.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 그녀가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빛의 사자들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에게 말하는 두 천사들의 면전에서 다른 누군가의 심장 박동을 감지했건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데 집중합니다.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 자신의 슬픔을 누그러뜨려보려고 말이지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크게 소리”를 내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사안에 몰입하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걸으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의 메시지의 놀라움과 신비를 놓치지요.

우리가 마리아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좋은 일에 참여하지만 염려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안과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친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새로운 현실로 향하게 한 세 가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4

천사들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마리아는 뒤를 돌아 보니 동산 관리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들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려 달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훨씬 명백한 기회를 거의 놓칠 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어조가 마리아에게 친숙함의 심금을 울려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마리아야!”라는 말은 지금까지 전해진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라고요.

그것이 전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망, 사랑, 구원, 은혜, 미래, 생명. 그것은 인격적 관계성을 전달했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마리아는 놓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찾고 있었던 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변했고 그녀의 사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사라졌고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없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현존하시고 그녀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 새로운 현실을 체험합니다.

그녀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를 돌파한 것은 천사들도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의 세마포 신비에 대한 상념도 아니요, 무덤의 돌이 굴러간 것도 아니요, 심지어는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돌파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친숙함, 마리아를 “아심”, 그리고 소망과 영접을 전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현실을 파악할 기회들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현존하심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불완전할지라도 그 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숨바꼭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부활하신 현존의 표적을 우리가 놓칠 때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도 종종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장엄한 석양이나 피어나는 꽃봉오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 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다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

“그 곳에 있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추구하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루 내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매일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슬픔과 놓친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에 추신을 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공유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긴 아침 동안에 그분의 부활의 증표를 놓쳤거나 잘못 파악한 그녀에게, 과거가 있는 그녀에게 (비록 용서받은 자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그녀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실패가 아니라 그녀의 헌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끈질김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추구하는 특징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의 인격적 만남은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 발견이 아니라,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만남 그 자체가 그 메시지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 있을 가치가 있게 하는 메시지이고 나눌 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